

***고문희, 정만기, 손영익, 백정환, 정한신**

목 적 : 소아 후두기관협착 환자에서 후두기관재건수술(laryngotracheal reconstruction, LTR)의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수술 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는 single stage LTR(SSLTR) 및 수술 시 기관절개술이나 카테터 유치를 함께 시행하는 two stage LTR(TSLTR)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후두기관협착으로 인해 본원에서 후두기관재건수술을 시행 받은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14명의 환자 중 8명은 남아, 6명은 여아였고, 평균 연령은 4.4세 였으며 (1-15세), SSLTR 군은 5명, TSLTR 군은 9명 이었다. 후두기관협착의 원인으로 기관삽관 후 발생한 경우가 SSLTR군 중 4명, TSLTR군 중 8명이었고, 선천적 성문 하협착이 SSLTR군 중 1명, 후두 외상 이후 협착이 TSLTR군 중 1명 있었다. 수술 후 결과에 대한 지표로서 첫 수술 이후 시행한 총 수술의 횟수, 재수술(revision LTR) 여부 및 횟수, 술 후 발관율과 평균 소요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수술 전 협착의 정도는 SSLTR 군이 평균 Grade 2.2, TSLTR 군이 평균 Grade 3으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는 없었다. SSLTR 군 중 4명 및 TSLTR 군 중 7명은 늑연골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두 군에서 각 1명씩은 윤상 연골 절개 후 재배치 수술을 시행 받았다. TSLTR 군 중 1명은 갑상연골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전에 후두수술을 시행 받은 병력은 SSLTR 군 중 40%, TSLTR 군 중 50%에서 있었다. 첫 수술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한 수술 횟수는 SSLTR 군에서 4.4회(1-12회), TSLTR 군에서 6.2회(1-21회) 였다. Revision LTR을 시행한 경우는 SSLTR 군에서 2명 (40%, 각각 1회, 2회), TSLTR 군에서 4명 (44%, 각각 1회,1회,2회,3회) 이었다. 발관율은 SSLTR 군에서 60%, TSLTR 군에서 22.2% 였고, 첫 수술로부터 발관까지의 소요기간은 SSLTR 군에서 0.43개월(0.2-1개월), TSLTR 군에서 31.4개월(1-82개월)이었다.

결 론 : 중증의 협착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한 후두기관협착의 경우에는 two stage LTR 필요하겠지만,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소아의 성문 하 협착의 경우에는 single stage LTR이 좋은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

▶ 13:30~13:40

기관지 협착증에서 Cold instrument와 Mitomycin C를 사용한 내시경적 기관지 확장술의 유용성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승원, 박진규, 이종대, 이재용, 김시찬, 고윤우, 오천환, 장혁순**
목 적 : 내시경을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Mitomycin C, 레이저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 적용범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저자들은 점막에의 열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레이저 대신에 cold

instrument와 intralesional steroid injection, mitomycin C를 이용한 내시경적 기관지 확장술의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 법 : 2005년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기관지협착증으로 내시경적 기관지 확장술을 시행 받은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술 후 협착 정도, 원인, 동반질환, 협착의 길이, 술 후 합병증, 및 수술 결과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은 apnea technique하에서 cold instrument로 radial incision을 가한 후에 mechanical dilatation을 시행하였고, 술 후 재협착의 방지를 위하여 intralesional steroid injection과 mitomycin C를 apply하였다.

결 과 : 환자의 평균연령은 52세, 평균 재원기간은 3.1일,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0.5개월이었으며, 협착의 평균 길이는 0.8 ± 0.3 cm 이었다. 협착의 주된 원인은 prolonged intubation과 tracheotomy였으며, 이중 3명의 환자는 개방성 기관지 확장술 후 재협착이 발생한 환자였다. 대부분의 환자는 high surgical risk 환자로서, 술 전과 술 후의 기관협착의 grade는 술 전 2.3 ± 0.6 에서 술 후 0.9 ± 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 ($P < .01$). 수술 후 발관 가능성이 8/15명, 협착의 정도와 증세의 호전이 8/15명을 보여, 86.7%의 성공율을 보였다. 합병증으로는 술 후 CO2 retention과 기관지 출혈이 각각 1명에서 발생하였다.

결 론 : 기존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에 Cold instrument와 mitomycin C를 이용한 내시경적 확장술은 high surgical risk 환자와 개방적 확장술 후의 재협착의 보조치료로서 유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 13:40~13:50

대구시 지하철부상자들에 대한 임상적 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3년간의 전향성 추적 조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송달원*, 최홍식*, 송시연

목 적 :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참사 후 후두 손상을 받은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성후유증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하여 화재 부상자들의 후두 손상과 음성장애의 정도를 파악하여 대구광역시에 부상자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져 하였음.

방 법 : 지하철 화재 참사 부상자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와 영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2004년 2월부터 9월까지 1차 검진을 시행한 남자 62명, 여자 63명, 평균 연령 34.54세(연령분포(5세~67세))의 125명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차 검진을 시행한 남자 35명, 여자 52명, 평균 연령 35.95세(연령분포(7세~71세))의 87명을 대상으로 후두 내시경과 음성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구시에 제출한 보고서 작성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였다.

결 과 : 후두 내시경검사상 1차검진에 비해 2차 검진에서 성문 상부에서는 발적과 부종, 반흔 소견이 감소하고 성문부에서는 발적은 감소하였으나 비후와 성문 불완전 폐쇄 소견이 증가하였다. 음성 검사상 청지각적 평가에서 2차 검진시 1차보다는 애성이 감소하고 음성의 질이 향상되었다. 음향학적 검사에서 2차 검진시 1차 검진에 비해 음성의 파형이 더 주기적이며 안정적이 되고 음성의 소음이 감소하였다. 공기역학적 검사에서 2차 검진시 1차 검진에 비해 후두 근육의 기능과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적은 공기로 충분히 발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상적 grade 4인 환자가 15명 있었다. 이 중 10명이 반흔 떠나, 격막으로 인한 후두 협착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병변이 남아 있고, 나머지 5명의 환자도 반흔 떠, 격막으로 인한 후두 협착과 성대 고정 소견이 있다.

결 론 : 성문 불완전 폐쇄소견, 반흔 떠, 후두 격막, 후두 협착과 성대 고정등의 만성 후유증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1차 검사에 비해 2차 검사에서 임상 소견 및 음성 검사 소견은 호전되었다.

▶ 13:50~14:00

재발성 선천성 기관식도누공 환자에서 삼염화아세트산을 이용한 누공 폐쇄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장현, 하정훈, 김광현, 성명훈

재발성 선천성 기관식도누공에 대한 치료로 기존의 개흉술은 수술적 술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술후 합병증도 높다. 따라서 덜 침습적인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삼염화아세트산을 이용한 화학소작술은 이상외동누공 환자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재발성 선천성 기관식도누공 환자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여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출생 직후 기관식도누공으로 진단 받고 개흉술로 누공 절제술은 받았으나 이후 재발된 3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누공 폐쇄를 위한 화학소작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전신마취하 강직형 기관지경을 삽입 후 누공의 기관측 개구부를 찾은 후 삼염화아세트산을 이용하여 소작술 시행하였다. 술 후 식도조영술을 및 강직형 기관지경 검사를 통하여 누공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였다. 3례에서 시행되었으며, 2례는 식도조영술로, 1례는 흉부전산화단층촬영으로 재발된 누공을 진단받았다. 모든 예에서 강직형 기관지경 소견상 누공은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각 수술 시행 후 식도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평균 3.3회 시행 후 누공 개구부의 폐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없었다. 재발성 선천성 기관 식도 누공 환자에서 삼염화아세트산의 소작술로 누공을 성공적으로 폐쇄시킬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기관식도누공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 두경부Ⅳ [타액선] •

14:00~15:00/ 극장식당

좌장: 봉정표, 태경

▶ 14:00~14:10

The Neck Node Management of Parotid Gland Carcinom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백승재, 홍현준, 박준희, 최은창

목 적 : The therapeutic neck dissection is considered as optimal treatment method for clinically positive neck patient. The decision for elective neck dissection is difficult because the frozen diagnosis of salivary gland is not definite. In this study, we want to find the optimal neck management principle of the parotid gland carcinoma.

방 법 : From 1993 to 2006, a total of 141 consecutive patients with complete clinical and pathologic data were collected. All patients were treated with surgery with or without post-operative radiotherapy. Neck dissection was performed in 55 cases.

결 과 : Histologically confirmed positive neck nodes were found in 25 cases. The incidence of lymph node metastasi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istologic diagnosis: 62.5% (5/8) of salivary duct carcinomas and 4%(1/25) of low grade mucoepidermoid carcinomas. In the clinically or pathologically node-negative group, the nodal recurrence rate was 3.6% (4/109). 75%(3/4) of the regional failure cases were successfully salvaged by surgical treatment. The lymph node metastasis rate of parotid gland carcinoma depends on the histologic finding and successful salvage rate was relatively higher than in other head and neck carcinomas.

결 론 : Elective neck dissection of all parotid gland carcinomas may not be justified; only a limited number of cases required elective neck dissection

▶ 14:10~14:20

변형 이하선 절제술 :

대이개 신경과 이하선 천엽 근막의 보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교실